

교회 목표

신앙관 예배
한국인종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이번 주 수요일(12일), 교회주변 전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전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부활과 생명(요 11:25), 그 자체가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주변 전도가 여전교회 중심으로 이번 주 수요일(12일)에 있습니다(수요 1부 예배-교구별 영성훈련-교회주변 전도 실시). 특히 여름의 더운 날씨 때문에 자칫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더욱 온전한 기도로 준비하여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복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자기 때에 자기의 맡음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십자가 복음으로 세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F.M.T.C. 영성훈련, 7월 11일(화)~14일(금) 충현 기도원

F.M.T.C.(Foreign Mission Training Course)는 복음을 깨달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선발된 현지인 선교사 훈련과정입니다. 총 2년간 4학기제로 운영되며, 이들이 십자가에 기초한 신앙과 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은 물론 생활비까지 배설 지원하여 이들이 복음에만 전력 투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월 1:27). F.M.T.C.의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집중 훈련을 하며, 평소에는 학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삼방, 양육, 전도, 하원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다(갈 6:17). 이처럼 온갖 위상으로 아등 가운데 처한 고국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기도하는 눈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딤후 1:8).

이번 주 화요일(11일)부터 금요일(14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F.M.T.C. 영성훈련이 열립니다. 이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 훈련을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서 F.M.T.C. 훈련생들이 더욱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은총의 영성훈련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갈 2:20). 지난 3월, 처음으로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한 훈련생이 고국으로 돌아가 현재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F.M.T.C.를 매개로 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집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빌 1:21).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배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뜻이 가장 높은 법칙이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줄 알고 있다고(요 5:14,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학자 니고메토를 향하여 거듭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다(요 3:3). 이 새로 태어남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다(요 3:5-7).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최고의 경배로 돌려질 것이 여호와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 만일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나 아니시라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드러져야 할 홀로 모든 것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남아 있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 이 말씀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육에 속하였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려 주고 살아왔음을 말씀하여 주신다.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잠 23:26).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바가 가장 높은 법칙이요,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요, 가장 큰 결론인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자기 중심적이다. 사도 바울은 간절하고 확신을 가지고 쓰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다(요일 5:4,5).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온 마음의 고백이 “나는 아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다.” 믿음인가! 바울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중언하고 있다. 홀로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궁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본질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다. 부정적으로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우리의 뜻으로 여기며 살지 않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결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임재하시는 역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전혀 하나님이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진정한 생명의 느낌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성경은 간절히 중언하고 있다(요일 5:11,12).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의지만이 살아 있는 우리의 아닌가! 진정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새로운 삶이 확실하게 존재하는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양심, 윤리, 이념만을 사는 것을 운운하는 의식적인 우리는 아닌가! 천지이 우주 만상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외에 천지 만물만은 분이 어디 있었으며, 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분이 되시겠는가? 우리는 이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속욕으로 꼭 차 있는 죄인들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져야 할 존경, 신의, 경의함, 사랑과 봉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골 3:18,19).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새 사람을 말한다(엢 4:21-24).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찾자.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롬 1:22,23).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기를 원한다(골 1:25).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사악하다. 이방인들은 적어도 죄와 상관없이 세와 바를 달린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들을 숭배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물들어 비참하고 참담한 자신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 외에도 이방인들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못난 것들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며 토설한다. 그러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고백조차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을 위하여 선조들이 알려 주신 사도신경도 우리 손에 쥐여져 있지 아니한가!(골 5:8) 창조주의 사랑이 피조물에게 내리었고 우리로 새 생명을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골 6:4). 다시는 죄의 종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롬 6:6,8,11).

BITTER WATER

(22)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of Shur; and they went three days in the wilderness and found no water. (23) And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s of Marah, for they were bitter; therefore it was named Marah. ... (27)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were twelve springs of water and seventy date palms, and they camped there beside the waters. (Exodus 15:22-27)

After God freed Israel from Egyptian slavery, destroyed their enemy in the Red Sea, and gave them a great leader to guide them to the Promised Land; they grumbled and became very angry about their blessing. Even though God gave them everything, and their condition was beyond excellent, three days into their wilderness journey they turned,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of Shur; and they went three days in the wilderness and found no water"(v. 22). When they finally came to a body of water and tasted it, they found it was bitter, so they got annoyed and started complaining. The Lord God knows the way through the wilderness. Israel's wilderness crossing is a wonderful lesson that directly applies to the Christian's journey toward heaven. Their experience with bitter water helps you to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bitter waters in your life.

Traveling for three days in the desert, the Israelites were thirsty.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s of Marah, for they were bitter; therefore it was named Marah"(v. 23). Difficult times come to believers. Many of today's Christians profess that everything is always wonderful and good, but that simply is not true. We all have trials! Jesus said,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Jn. 16:33). Like the Israelites, I am sure you have tasted bitter water. Too many Christians expect only good things to happen, so that when anything bad does occur, they complain to God. They think that the Christian life is supposed to be trouble free, without bitter water. My dear friend, often times, God leads you to bitter water.

The bitter water of Marah gave the Israelites a bitter mouth, "So the people grumbled at Moses"(v. 24). They blamed the servant of God. Their dissatisfaction and disappointment drove them to complain. When you complain, you cannot receive God's blessing or bless other people. Saul was bitter toward David, and in the beginning, the prodigal son complained against his parent's home. Colossians 3:19 tells us,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do not be embittered against them." Sometimes the word of God makes you bitter, but you have to repent. Where bitter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exist, "there is disorder and every evil thing"(Jam. 3:14-16). Hebrews 12:15 reminds us, "See to it that no one comes short of the grace of God; that no root of bitterness springing up causes trouble, and

by it many be defiled." Bitterness in you causes trouble to others. My dear friend, bitter water is part of the Christian journey, but a bitter spirit is not.

Moses did not quarrel with the Israelites, but made His plea to God. "Then he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tree; and he threw it into the waters, and the waters became sweet. There He made for them a statute and regulation, and there He tested them"(v. 25). Real Christians do not argue. If someone criticizes you, you just pray. Moses did not know what to do, so he prayed. Prayer is the answer! God promises wisdom to those who ask, "But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of God, who gives to all generously and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to him"(Jam. 1:5). God gave Moses direction and wisdom. He showed him the tree, and Moses took the tree and threw it into the bitter water and the bitter water turned sweet. My dear friend, prayer overcomes tribulation.

The tree that Moses threw into the bitter water symbolizes the cross on Calvary. Can you imagine how bitter all the sin of the world must have been? God threw that tree in the middle of it all, and that tree turned the bitter curse of sin into sweet happiness. Now, if your soul is dry and thirsty, you can come to Jesus and drink the sweet water of eternal life. If you come to Jesus, He will change your bitterness into blessing. John 7:37 says, "Now on the last day, the grea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cried out, saying,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Jesus did not speak these words in sermon tone, but yelled them out with a loud voice. He wanted everyone to hear them, all the peoples from around the world who came to Jerusalem for Passover. This was His last day before the cup of suffering came to Him. My dear friend, I pray that you can hear Jesus' voice.

Bitter water is not pleasant. God does not want you to enjoy it, nor does He want you to complain or grumble over it. He wants you to endure it, so that He can change it into the sweet water of eternal life. Without Jesus Christ, you will never taste this special water. With Jesus Christ, you can navigate through the bitter waters of earthly life and reach the heavenly shore. With Jesus Christ, the bitter waters are temporary, and although unlikable, through prayer your heart will maintain peace and joy. Amen. 

다음 주일 설교

쓴 물

⁽²²⁾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²³⁾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²⁷⁾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 둘과 종려 칠십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22~27)



김성판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대적을 홍해에서 멸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오히려 불평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더할 나위 없는 조건 속에서 지냈지만, 사흘 길을 광야에서 행하면서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2절). 마침내 수원을 발견하고 물을 맛보았지만 그것은 쓴 물이었습니다. 이내 그들은 짜증을 내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횡단에는 그리스도인의 천로 역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쓴 물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여러분이 인생 길에서 만나는 쓴 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3절). 시련의 순간은 신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사가 늘 흥통하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이 닥쳐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쓴 물을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제외된, 다시 말해 쓴 물이 없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쓴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원망하여

마라의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24절).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습니다. 불만족과 실망이 불평을 자아냈습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 격심한 분노에 사로잡혔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골로새서 3:19는 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때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 있을 뿐입니다 (약 3:14-16). 히브리서 12:15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쓴 물이지, 쓴 뿌리가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5절). 참 그리스도인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단지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해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를 가라키자 모세는 그것을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세가 쓴 물에 던졌던 나뭇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뭇를 모든 죄 가운데에 던지셨고, 그 나뭇는 죄의 쓰디 쓴 저주를 달콤한 행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갈갈하다면, 예수님께 나아와 영원한 생명의 단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쓴 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37은 말합니다. “평절 곧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고통의 잔을 마시기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쓴 물은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쓴 물을 영원한 생명의 단 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특별한 물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쓴 바닷물을 헤치고 항해하여 천국의 물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달갑지 않은 쓴 바다는 한순간에 불과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눅 9:51)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안에 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은 결심하신 내용이 있다. 주님의 사역이 끝날 때가 왔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사역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주님의 목적을 알고 계셨고 배반당하시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이 목적을 알고 계셨다. 또한 그리스도로써 행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멸시를 받고 가장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눅 9:2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다(눅 9:27, 3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이며 왕인 자신이 배반당하고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의미를 모르면 천국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찬송한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에 대해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찬송하면서 또 영원히 거할 집에 대해서 모르는가? 우리는 신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신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과 은총이 주어진다. 보혈로 거듭나게 된다. 미례를 바라볼 수 있고 죽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영원한 예루살렘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 자신의 영광, 나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시간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함이다(눅 19:28-3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신 나귀에게로 보내시며 그것을 사용하신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놀라운 주님의 섭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없다(요 2:4). 자신의 뜻과 의지에 종양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고(요 6) 그 일을 행하셨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위하여 나귀 새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우리의 본향,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다.

성령을 응하게 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 안에 주어진다(사 53:4,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교와 저주를 지신다.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쥘림은 우리의 허물을 갚으신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발자국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의 말씀대로 주님은 믿음의 길을 여시고(골 1:13,14),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시온의 딸이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눅 9:9). 영의 귀와 눈을 열어 아람다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수님의 탄생(요 5:22) 역시 말씀을 이루기 위함(사 7:14)이었고 버림받으심(사 53:3)도 말씀을 이시기 위함이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도 성령대로 이루어졌다(고전 15:3,4).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보증하신 것은 적인을 위한 것이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라 올라가신다.

그것은 영원한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눅 24:33,34).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곳은 죽음의 장소이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부활의 장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다(눅 24:51-53).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주의 집이 되기 때문이다(계 21:2, 9,10)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니"(눅 6:20)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명예와 칭찬을 위한 삶인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망시키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눅 6:22)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영원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한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예루살렘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실존적인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잃은 양을 찾아 가는
십자가의 종단들, 중등 1부

전능대 (장로, 중등 1부장)

중등 1부는 소년에서 청소년이 되어 가는 첫 단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 제1교육관 301호에서 모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10시 30분까지 찬양부로 나뉘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지기 기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중등 1부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예배 담당을 미리 정해 놓고 기도로 준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인데도 중등부로 올라오면서 앞당겨져 초기에는 학생들이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주일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한 전리회를 섬기는 학생들도 미리 나와서 예배와 여러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몇몇 동아리들은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큰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답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고후 7:4).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 수업 외에 학원 수업에도 크게 의존하게 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영적인 생활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찬양부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며 주일을 지키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인 자녀 중에 중등 1부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성남들

이 팀을 나누어 심방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흥원교회에 속한 가정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반드시 저의 중등 1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등 1부 학생들이 자신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십자가 종단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심반은 격주 토요일에 각 과별로 정해 놓은 학교에 나가서 기존 학생들과 만나 새로운 학생들을 전도하는 학교 전도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방학 기간에는 학생과 교사가 팀을 이루어 3개 팀이 단기간으로 다녀왔습니다. "나는 아리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렘 1:7)라는 말씀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렘 1:8)는 말씀이 이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직 세례 교인이 아니므로 각자 14개 지면 때를 정한다는 사색서를 쓰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차이를 하는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열방에 나아가 그곳 영혼들에게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살후 1:11).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천국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아직 중등 1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과 같은 이들을 위해 모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한 생명의 복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도시 쪽에는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어서 배타적이고 경계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팀은 산지 깊은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는 무슬림과 가톨릭 교도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무척 덥고 습기가 많아 힘들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문을 읽히며 결신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도 두세 번 반복하자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무슬림들의 거센 반발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우리 앞에서 전도지를 구기고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곳 무슬림들의 특징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보다 주가 환경이 지저분했고, 청소년들은 거칠고 담배를 피웠으며 풀어진 눈동자엔 꿈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약을 씹고 다니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뿌려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화순(집사, 3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0팀	전계식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1팀	이계인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3팀	배춘식
7월 11일(화) ~ 7월 20일(목)	대학부 35팀	윤선한
7월 12일(수) ~ 7월 19일(수)	2교구 8지역	이상해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6팀	신광철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7팀	유종식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9팀	박덕양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32팀	윤석민
7월 13일(목) ~ 7월 21일(금)	12교구 3지역	최경하
7월 14일(금) ~ 7월 22일(토)	청년1부 6팀	김신국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4일(화) ~ 7월 11일(화)	대학부 30팀	강만수
7월 5일(수) ~ 7월 13일(목)	대학부 31팀	장승규
7월 7일(금) ~ 7월 14일(금)	대학부 28팀	권오준
7월 7일(금) ~ 7월 14일(금)	대학부 25팀	문연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6(월) ~ 7월 4일(화)	4교구 6지역	문효식
6월 26(월) ~ 7월 4일(화)	5교구 6지역	전종일
6월 27(화) ~ 7월 5일(수)	4교구 10지역	이홍우
6월 27(화) ~ 7월 6일(목)	10교구 1지역	김헌배
6월 28(수) ~ 7월 6일(목)	6교구 8지역	안상직
6월 29(목) ~ 7월 7일(금)	2교구 7지역	조홍연

죄인 중의 괴수를 불러 먼저 은혜받게 하심은

14교구 1지역

◇ 지난 번 선교를 갔을 때는 영육이 갈급에 있는 그들을 보며 말할 수 없이 측은해 보였는데 올해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잘 받아 들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출출 따라다니며 수업에도 들어가서 아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희자 권사)

◇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들은 교실 안의 어린이부터 함께 학교 등에서 찬송하며 뛰던 아이들, 끝없는 지평선뿐만 황량한 들판에서 만났던 학생들, 집에서 마을에서 만났던 남녀 노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함께 찬양하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순희 권사)

◇ 광야와 깊은 황무한 땅에서 외롭게 신앙의 길을 걷는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외로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그들 부부를 통해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희숙 권사)

◇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며 순간 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은총,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보았고, 눈물을 보았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느꼈습니다. (홍현희 권사)

◇ 학교 사역 때 만난 어린이들의 선한 눈동자를 보니 무척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많은 노동자의 어린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우신가 봅니다. 해맑은 노동자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강영자 집사)

◇ 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만난 현지인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나의 안일했던 신앙을 회개하였습니다. (채자연 집사)

◇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5명 중 되는 학생들에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 파자 내시의 만남이 연상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며,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숙영 집사)

◇ 죄인 중의 괴수를 불러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의 단을 추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연숙 집사)

◇ 방목한 학교의 어린 아이들 앞에서 사역할 때 전도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그 밑의 한 절 한 절 성경 말씀을 읽으며 '아멘'으로 영접 기도까지 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셨습니다. (김영현 안수집사, 팀장)

은총으로 자유받은 영혼과 육신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일 주일에 세 번만이라도 제 눈에 고통을 안 주신다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2000년 8월부터 '양포반복성' 각막 진주름이라는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 없이 각막이 자꾸자꾸 벗겨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병원에서선 저와 같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각막 이식을 하면 되지 하는 가벼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 속에는 각막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각막을 이식한다 해도 또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악" 하는 소리로 지르지 못하고 두 눈이 부스러지는 아픔은, 머리카락 하 나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에는 고추가루를 잔뜩 뿌려 놓은 쓰리립과 속눈썹이 수백 개 들어서 제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전 통증이 올 때마다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보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셔도 그저 봉대로 두 눈을 칭칭 감는 것이 처방일 뿐이었습니다. 제 병은 점점 깊어져 약해진 각막으로 햇빛도 불빛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밤새조차도 말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도 못 하고 그렇게 5년을 병마와 싸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에게서 교회에 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팔짝 뛰었을 텐데 그날은 교회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올 때 병을 고치려고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맘껏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며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병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더욱 주님을 찾았고, 강단의 말씀은 그 어떠한 약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던 저에게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은 병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눈의 통증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각막이 더 이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교회의 모든 것은 낯설기만 하였는데 주님은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죄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붙들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자녀가 되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박신숙(7교구, 성도)

추수를 기다리는 일꾼다운 일꾼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 주변 전도를 하라는 전도위원회의 명령을 접했을 때, 왜 주변 전도가 필요한지 의아했습니다. '이 큰 회회를 누가 모른다고, 다 알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주변 전도일까?' 라고 생각했지요. 솔직히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달수가 지나자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옛 말이 이를 두고 한 것 같더군요.

우리가 전도하는 동네에는 흥현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곳은 주로 삼가 지역이어서 일 대 일로 접근하기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주막 단지 안에 있어서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라 전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주 춥고 눈보라가 치던 날, 그 날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 전도를 나갔지요. "저는 흥현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같이 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식당에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주님의 막한 영혼 2명을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단기선교 갔을 때 땅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더군요. 주님 외에는 이 기쁨과 감격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다짐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 거저 받았으니 저도 역시 이웃들에게 거저 주리라고요, 주님의 복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증언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면서요. 하라고 하니가 하는, 율법에 얽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게 축하고 너무 감사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구구석석 찾아다니면서 주변 전도를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하렵니다.

매일 둘째 수요일이 집이어서 무급기간 하더니 이제는 웬일입니까? 기다려지니 말입니다. 정말 추수를 기다리는 일꾼다운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참된 일꾼, 일을 맡겨 뵈어도 걱정 없는 일꾼 말입니다. 저의 모든 정력은 내려 놓고 주가 원하시는 언젠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렵니다.

김복수(권사, 10교구)

잘될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회화를 다니고 있어서 어떤 친구를 전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 한 친구가 생각이 났다. 하고 시간에 그 친구를 찾아가 "교회에 한 번 나가 보지 않겠나?"라고 물었다니 흔쾌히 가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뻐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를 하니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교회 가기로 약속한 전 날인 토요일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 날 학교에서 특별이 있어서 반별로 외부로 나가서 수업을 하였고 때문이다. 그 전 날인 금요일은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날이어서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했지만 핸드폰도 없고 그 친구의 집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겨우 그 친구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지만 그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너무나 실망이 되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곧바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친구가 교회에 간다고 했으니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것이 시작인데 말이다. 나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몇 시간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교회에 갈 수 있다."고. 후!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예수님! 저의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소영(중동1부)

교회 탐방 대학부(돌베개)

예수님을 만났던 은총의 증표, 돌베개!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중헌자들은 무언가 담담합니다. 돌베개! 언뜻 보기에 단순히 대학부나 동아리이지만, 이들에게는 세상과 확연히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돌베개는?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아리입니다. (조은영, 대장)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자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듯이, 저의 돌베개는 주님 옆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돌베개의 사역은?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5시반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아이들거나 결손 가정, 폭력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박건진, 부대장)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지민, 서기)
어머내는 성경학교를 하며 면담에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일일 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금 전액은 보육시설에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정주, 집사, 교사)
기도고 '제발'의 복음권이 아닌, 복음을 모르는 복음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모르는 보육시설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제한을 받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성진)
보육원엔 가서 대원들이 돌아면서 한 번씩 말씀 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경용)

돌베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정주, 교사)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박성문)
어릴 때부터 주님께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돌베개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전애인)
기도가 중요 있는 동아리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고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은영)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고, 저도 봉사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저를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하던 할수록 제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지민)

돌베개 사역을 통한 은혜와 기쁨은?

아이들과 소수한 만남을 통해서 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원우)
처음 보육시설에 갔을 때 저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아이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어렵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합니다. (임민성)
단순한 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살리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박건진)
사역 초기에는 청소년이던 학생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기에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뿐입니다. (김도현)
처음에는 아이들을 낚아채 반을 때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조금씩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은영)
제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제 자신을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최지민)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큼니다. 당장은 변화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전애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담, 한전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 기쁘고 있습니다. (전성진)

기도 제목은?

매년 여름에는 성경 학교를 합니다. 금년에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성경 학교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성진)
보육시설 아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 소 인도될 기도를 주께요. (이지연)
십자가로 아파 되는 돌베개가 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조은영)
돌베개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동아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성문)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최지민)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정주, 교사)
"아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하였더니 돌을 가져 거등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겔이라 하였더라"(창 28:18, 19). 결국 아람의 돌베개는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증표로서 베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돌베개의 자매들이 저마다 그곳에도 오직 예수의 존귀(갈 6:17)만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편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에 자극히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 내 가족이 찬양과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좋아서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의 일출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찬양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늘 기도하면서 찬양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잠 깨 때에도, 저녁에 잠 들 때에도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지금은 더욱더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선 교지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으며 찬양 드릴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온 가족이 찬양대에 봉사할 수 있기까지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 남편이 찬양 연습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일마다 남편 직장까지 가서 두세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거의 반강압적으로 남편을 연습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은혜 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연습에 참여하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쳐 주시고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맡겨 주신 사랑 감당하면서 찬양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거듭나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김현진(집사, 실로암 전도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39	최병택	19	대학부	박건진(14)	2052	서은성	19	대학부	전성진(14)
2040	와선미	19	외신부	임선정(18)	2053	김광호	16	장년2부	정경필(1)
2041	오나라	19	외신부	정글수(16)	2054	황해민	16	장년2부	정경필(1)
2042	나리진	19	외신부		2055	김라	19	외신부	주비이도비(19)
2043	아실혜	19	외신부		2056	나혜경	19	대학부	김한나(19)
2044	마네기	19	외신부		2057	전성원	1	교역자	
2045	하상은	2	대학부	최정희(2)	2058	김소라	1	시도	
2046	김보라	19	청년1부	유경혜(11)	2059	배홍진	9	청년2부	장명지(17)
2047	정은성	14	장년2부	오보희(13)	2060	한혜경	9	청년2부	김혜필(8)
2048	신명선	19	청년1부	이영진(1)	2061	문상일	19	청년1부	채홍표(4)
2049	최기정	19	대학부	장순경(6)	2062	김신숙	19	청년1부	최지연(3)
2050	서현숙	19	청년1부	김정수(6)	2063	김기봉	3	장년1부	최민석(4)
2051	박진호	19	청년1부	안수지(6)	2064	김두리	19	청년1부	김미경(12)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신동주
1등주 | 윤승진
1등주 | 한영준
11등주 | 김연식
11등주 | 홍승호
5.31 |
| 이국주
5.2주 | 김발자
16.2주 | 안태준
16.2주 | 김경연
16.2주 | 강덕희
5.31 |
| 최복실
5.2주 | 전은희
16.2주 | 김영순
17.7주 | 김자경
17.7주 | 김정호
5.31 |
| 이복순A
3.0주 | 류진희
3.0주 | 한성일
14.2주 | 임태주
14.2주 | 강영진
5.31 |
| 홍미자
사기문공부 3.0주 | 이복순B
3.0주 | 강호수
사기문공부 3.0주 | 전영희
사기문공부 3.0주 | 이혜영
사기문공부 3.0주 |
- 찬양강독팀 강영구
 ■ 찬양리허자 서준성 김원섭
 ■ 전담교사 김주연
 ■ 전담전주자 장은희
 ■ 전담교사 송수연